

'기후행동' 변화의 동력 얻어

군산서 두 달동안 8천여명 캠페인 참여 손수건 사용 등 하루 60건 이상 게시글 올라와

'금강미래체험관과 함께하는 기후행동 G-power' 캠페인이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G-power'는 군산(Gunsan)·금강(Gemgang)·그린(Green)의 G와 P(power, 힘)를 붙인 말로 세상을 바꾸는 힘을 의미하며, 교육 및 체험관으로서의 금강미래체험관 운영목표이기도 하다.

'기후행동 실천으로 금강미래체험관을 응원해주세요!'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참여자들이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등의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인증사진이나 영상을 개인의 SNS에 올리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간 진행된 캠페인 기간동안 8,000여명이

참여해 기후행동 실천 게시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댓글이 달릴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캠페인 기간 중 초성퀴즈, 응원의 합성 등 다양한 기념품 증정 이벤트들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의 플로깅, 제로웨이스트 챌린지 등의 자발적인 참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기후변화교육장으로서의 금강미래체험관 홍보와 더불어 일반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실제로 참여자들의 게시글을 살펴보면 장바구니를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는데 내가 하고 있던 행동이 기후행동이었던지 매우 뿌듯했다, 평소 하

던 손수건 사용이 기후를 위한 실천이 될 줄 몰랐는데 이번 기회로 알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 정말 간단하지만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캠페인이다 등의 긍정적인 참여 후기가 많았다.

온라인 캠페인은 종료됐지만 금강미래체험관에 직접 방문하면 기후위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며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응원스티커 붙이기, 기후행동다짐 적기 등의 기념품 증정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강인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조류독감 등 외형적 변화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던 철새조망대가 그린뉴딜 시대에 전복도를 대표하는 기후위기 교육공간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G-Power 캠페인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만큼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겠다."면서 "필(必)환경시대를 맞아 금강미래체험관이 기후위기와 금강생태 보호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는 ㈜예가원, 농업회사법인(주)유푸드와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익산시 산단 활성화 '청신호'

예가원·농업회사법인 유푸드, 투자협약 등 식품클러스터 100개 기업 유치 결실 맺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100개 기업 유치 결실을 맺으며 산단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예가원(대표 송하영), 농업회사법인(주)유푸드(대표 김강수)와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가원(대표 송하영)은 기존 타 가공류 가공회사와 차별화를 둔 최신 설비를 투자하고 자동화 라인을 구축해 닭고기를 이용한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창업기업이다. 3,308.4㎡(1,028평) 부지에 48억원을 투자해 21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이다. 농업회사법인(주)유푸드(대표 김강수)는 2018년 법인을 설립해 카카오, 쿠

팡 등 200개 이상의 소핑몰에 한우 등을 납품하는 육가공기업으로 총 1만 2,332.4㎡(3,731평) 부지에 65억원을 투입해 20명의 고용인원을 창출한다.

두 기업 모두 제조공장을 올 상반기에 착공, 하반기 중 준공해 가동할 계획이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입주기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가지고 있는 농식품원료, R&D, 관로, 수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활용해 익산시, 농식품부, 전라북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함께 새로운 성장 활로를 모색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홀로그램 콘텐츠 활성화 지원

도내기업 제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익산시가 홀로그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는 홀로그램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도내기업 제작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기업의 홀로그램 분야 사업영역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전라북도 지역에 회사의 분사, 연구소, 공장 등이 소재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품목지정형, 자유공모형으로 나뉜다. 품목지정형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홀로그램 콘텐츠와 재현 장치 제작을 위한 예산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며 자유공모형은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내 재현장치 활용이 가능한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을 위해 기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된

다. 사업 참여 신청은 홀로포탈(http://holoport.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063-837-3311)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문을 연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한 홀로그램 산업 지원기관으로 홀로그램 관련 기술과 장비, 리빙랩 운영, 홀로그램 제품의 품질 인증·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홀로그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련 분야 기업 육성으로 홀로그램 선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청년들, '군산 청년창업캠퍼스' 운영 호응

'스타트업 런칭 클래스' 실전창업교육 성공적 안착

군산시 청년창업기지도서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2021년 (예비)창업가를 위한 '군산청년창업캠퍼스, 스타트업 런칭 클래스'를 운영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초기 자금조달과 사업운영에 관련한 필수적인 정보, 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군산시민의 실전창업교육으로 추진됐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와 청년들에서 배출한 선배 창업가가 멘토로 참여하는 멘토링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교육 커리큘럼은 ▲창업자금 확보 실무 ▲정부지원사업 통한 창업 자금조달 방법 ▲사업계획서 작성법 ▲경영 3부(세무, 노무, 법무) 교육 ▲선배 창업가 및 애로사항 분야 전문가 멘토링 지원 등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발급된 48명의 (예

비)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청년들은 마케팅·지식재산권 출원, 시장개척단 프로그램 등 각종 창업 교육 및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창업에 대한 실무교육과 수요에 따른 멘토 매칭으로 교육생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안다"며 "교육을 수료한 (예비)창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익산 민·관 협력으로 청년 창업 지원

시·롯데마트 업무협약... 롯데마트 푸드코트 공간 제공

익산시와 롯데마트가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익산시는 최근 롯데마트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정현울 시장과 롯데마트 배호권 총청호남부문장, 모수경 익산점장, 강호현 익산 상권활성화 추진단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협력한다.

그동안 시와 롯데마트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방안을 논의해오던 중 롯데마트 익산점 내 푸드코

트 전체 공간을 청년들을 위한 외식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시설비와 임대료를 지원하고 롯데마트는 보증금과 관리비 면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청년(예비)창업자를 최종 선정하고 창업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자는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이하 예비창업자로 총 5개팀을 선발한다.

사업이 추진되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외식창업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대, BLS 강의실 구축

군산대학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최첨단 스마트 교육환경을 구축하며 주목받고 있다.

군산대는 온/오프라인 지원 학습관리시스템이 구비된 BLS(Blended Learning Smart) 강의실을 구축하고, 최근 인문대학 2층 강의실에서 시연회를 개최했다. 시연회에는 객석선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사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BLS강의실은 군산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추진단이 추진한 KSNU BLS(Blended Learning Smart) 강의실 구축사업의 일환이며, BLS일반강의실 18식, BLS 실험실 1식 등 총 19식이 구축되었다.

이 강의실은 온/오프라인 강의가 가능한 확장성 있는 통합 교육환경을 지원하는 최첨단 교육시설로, 그 효용도가 매우 높다.

유연성, 확장성, 융이성을 구비한 원격교육 플랫폼 역할을 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유연한 교육 도구 및 시설로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백신 1호 접종 군산서 실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지난달 28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전라북도 제1호 접종이 군산시 보건소에서 실시됐다.

이날 보건소에 따르면 전라북도 1호 접종 대상자는 군산참사랑요양병원 김정옥 원장으로서, 김원장을 관내 요양병원 의료진 및 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접종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로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1차 대응요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게 된다.

보건소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만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접종 명단을 1,790명으로 확정하고 이달 5일까지 보건소 방문접종과 요양병원 자체접종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